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나는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가끔 그들과 토론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집스런 취미[자연에 대한 애착]를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과거와 현재]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맛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였다.

⇒ 석가산 폭포를 짓게 된 내력 소개

나는 종남(終南)[지명]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다. 나는 대청[큰 마루]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석가산)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회양목 등 작은 놈만 골라 심었다.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 자[한 자 = 30cm]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인공적으로 만든 폭포]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이는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펄펄 솟아나는 것을 보며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 석가산 폭포에 대한 감탄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들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이는 이도 더러 있었는데,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이어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작지만 큰 산을 본뒀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이 연못은 겨우 너비가 두어 장(丈)[한 장 = 3미터]이고 깊이도 두어 자밖에 안 되며, 산 높이는 다섯 자이고 둘레는 일곱 자이며, 폭포의 높이는 두 자인데 나무들의 크기는 서너 치[한 치 = 3cm]쯤 되어 마치 높은 산을 축소하여 만든 것 같았다. 산골짜기는 그윽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진다. 이 축소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의 정건이나 왕유[중국의 화가 이름]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眞假)를 논하겠는가?[진짜 자연은 하늘과 땅이 자신이 만든 산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마음이 만족이 중요함)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 진가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함

그런데 이곳의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보아도 싫증 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싸아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원관념 : 폭포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 석가산 폭포가 주는 즐거움

나는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가난하고 지체가 변변치 못 함]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것들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로써 귀를 즐

겁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샘플로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욕심이 없고 조출함]하면서도 멋이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인공 폭포산을 만든 것]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아름다운 것, 기름진 음식, 관현악기]과 바꾸지 않겠다.[이미 모든 즐거움을 주는 인공 폭포가 있기 때문에]

⇒ 석가산 폭포에서 느끼는 소박한 즐거움

▣ 작품해설

▣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수필

■ 특징

자연에서 느끼는 깨달음을 교훈적, 체험적으로 나타냄
대상에 대한 개념 및 성질

⇒ 일반적 인식 ⇒ 새로운 의미 발견의 인식과정이 보임

■ 구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즐거움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색깔, 기름진 음식, 관현악 소리)

⇒ 진가를 따지려 함

“나”가 느끼는 즐거움

(석가산의 폭포, 차고 맛있는 샘물, 폭포소리)

⇒ 진가를 따질 필요가 없음

■ 주제: 석가산 폭포에서 느끼는 즐거움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화자가 노년에 별장에 내려가 가산(假山)과 폭포를 만든 후 그것을 만들데 된 경위와 아름다움에 대해 쓴 고전 수필이다. 석가산 폭포가 비록 가짜 폭포이기는 하지만 미각, 시각, 청각의 즐거움을 모두 주고 있으니 굳이 진가(眞假)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글쓴이의 소박한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이해와 감상

위 글은 조선 예종 때의 문신이었던 채수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 ‘나재집’에 실은 <석가산폭포기>의 일부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과정과 그 속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적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유난히 자연을 사랑했던 것 같다. 정원을 만들고 조경을 가꾸어 자연과 가까이 하려 한 것은 신분과 계급을 떠나 당시 사람들의 염원이었던 모양이다. 왕가의 공간이었던 궁궐정원은 두 말할 나위 없고, 서원이나 민가, 별서, 하다 못해 유배지에서까지 그들은 정자와 정원을 가꾸며 자연에 관한 시를 읊조리고 문장을 쓰며 이를 즐겼다.